

中國 團領名稱에 關한 研究

文 光 姬

東義大學校 家政大 衣類學科

A study on the name of Dan-Ryong in China

Koang-Hi M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Dong-Eui University

(1987.3.6 접수)

Abstract

Dan-Ryong is the traditional clothing that was worn the entire of oriental nations, and it was spreaded from Sun-Bi tribe to China about A.D. 4C.

The first, the name of Dan-Ryong was translated with 25-Sa and Ancient-History Book. Among the name of Dan-Ryong, the follows were different between the name and shape.

Jang-Bok was the colored Dan-Ryong, So-Bok was the unfigured black Dan-Ryong and removed Hyung-Bae, Ea-Mun-Pho was the Dan-Ryong of embroidered figure poetry, and Ja-Sam was the real short and tight Dan-Ryong.

The second, some problems were given by translated Dan-Ryong's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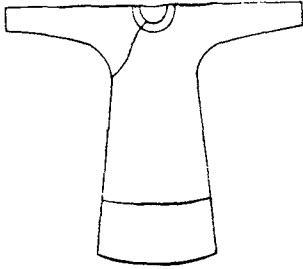
The results of the problems were as follows;

1. Dan-Ryong was oriented from Won-Wi.
2. At Su-Dynasty, there was going to the persuit of Han-Dynasty Courtesy, but they liked useful custom. Therefore Dan-Ryong was worn in daily life among the population.
3. At Dang-Dynasty, Ho-Bok was devided with three meanings. The first was Go-Sub, the second was Dan-Ryong of Buk-Jo about A.D. 3~5 C and the last meaning was the clothing of Uighur, Turkey, Persia and etc. about A.D. 7 C.
4. The name of neck-line shape was started at Song and the majority arised about A.D. 12 C. and Dan-Ryong was only arised at Myong-Dynasty.
5. Gok-Ryong, except Song-Sa and Sam-Je-He-Do, was different from Dan-Ryong and it was shape of neck-line inside of Jik-Ryong.

I. 緒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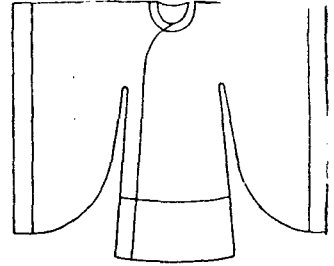
團領은 胡服의 一種이며 최근 이것에 對한 研究가 活發히 전개되고 있다. 團領이란 원래 옷깃의 모습만

을 의미한 것이었으나 後日 「깃모양이 둥근 겹옷」^{1,2)}으로 通稱되었으며, 胡俗에서 發生된 것이었으나 漢民族에게 流入된 후 소매폭 및 무의 모습에 따라 多樣한 形態로 變化되어 <圖 1~圖 4 參照> 漢의 傳統服制인 深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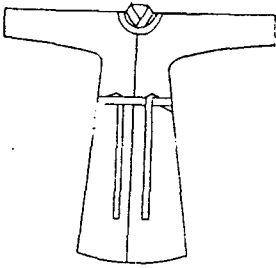
唐

〈圖 1〉唐；圓領大襟袍，窄袖，膝下施一橫襠。（中國服飾五千年，p.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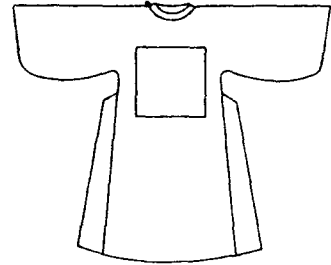
宋

〈圖 3〉宋；圓領袍衫，大袖，膝下施一橫襠。（同書，p. 244）



遼

〈圖 2〉遼；圓領窄袖袍，腰間繫帶，下垂過膝。（同書，p. 244）



明

〈圖 4〉明；盤領袍，前後各綴一方補子，左右脇下綴襠（同書，p. 245）

制와 아울러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服制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着用期間이 1,500餘年間に 이르고 地域的으로 中國, 韓國을 비롯하여 尤라시아 일대에 두루 着用되였으며, 着用階層 역시 皇帝에서 百官, 士庶, 商工人에까지 이르렀으니 衣服으로서의 그 領域 또한 매우 넓은 것이라 하겠다.

本 研究는 中國의 團領을 細部的으로 파악하기 爲해 古文獻에서 團領으로 推定되는 名稱을 발췌하여 同質的인 것으로 分類하고(表 1參照) 그 해석과정에서 提示되는 몇가지 問題點들을 열거한 후 諸著作物 및 研究報文등을 參考資料로 하여 그 實證의 究明을 시도한

것이다.

中國團領의 확립은 韓國服飾史의 定立, 그 中에서도 特히 團領着用期의 初·中期에 해당되는 統一新羅로부터 高麗時代까지의 服飾史의 空白을 채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諸側面에서의 細部의 研究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現在 團領에 對한 研究는 不斷히 계속되고 있으나 提示된 問題點들에 對한 國內에서의 밝힘이 희소한 까닭에 推論의 過程에는 혹 誤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此後 면밀한 研究를 通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II. 文獻調查 結果 나타난 團領名稱의 種類

中國 25史를 中心한 古文獻을 活用하여 團領으로 推定되는 名稱을 발췌하여 時代 및 用途別로 分類해 본 結果 다음의 <表 1>과 같이 整理되었다. (原文 및 그 에 對한 解釋은 本會紙 末尾의 收錄文『團領으로 推定

1) 金也之, 文光姬, 佛畫를 통해 본 高麗服飾과 同時代 中國服飾의 比較研究 - 高麗十王圖의 團領을 中心으로 -,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 第11輯, 18 (1985).

2) 金也之, 文光姬, 中國의 團領研究, - 古文獻을 中心으로 -,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 第12輯 3, 12, (1986).

〈五 1〉 圓領名稱의 時代別 用途別 分類

朝代	南北朝以前	隋	唐	遼	宋	金	元	明	出處
名稱	常服②	戎服② 常服② 朝服①	常(時)服②④②① 便服②① 燕服②① 時服② 朝服② 朝服②①② 緋黃袍②①② 緋黃文綾袍③	常服⑤	公服⑤②① 朝服②① 時服⑤⑥ 戎服⑤⑤ 常服⑤⑤	常(朝)服⑦②③ 公服⑦ 朝服⑦	紫羅公服⑥ 朝服③ 常服⑧	公服⑨ 常服⑬⑨ 便服⑩ 朝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用途別	常服②	戎服② 常服② 朝服①	常(時)服②④②① 便服②① 燕服②① 時服② 朝服② 朝服②①② 緋黃袍②①② 緋黃文綾袍③	常服⑤	公服⑤②① 朝服②① 時服⑤⑥ 戎服⑤⑤ 常服⑤⑤	常(朝)服⑦②③ 公服⑦ 朝服⑦	紫羅公服⑥ 朝服③ 常服⑧	公服⑨ 常服⑬⑨ 便服⑩ 朝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色	黃文綾袍②① 緋色① 綠色②	章服②③ 黃袍②①② 黃文綾袍③ 紫黃色②③④ 緋色②③④ 綠色②③④ 朱青色② 白色③	章服③④①②① 素服④④②① 紫服④④②① 紫色④④②① 朱色④④②① 白色④④②① 綠色④④②① 青色④④②① 緋色④④②①	紫袍⑥ 緋衣⑥ 綠袍⑥	章服⑤②①	無紋素羅⑦ 紫袍⑦ 青袍⑦ 白色⑦	無紋素羅⑦	白衫④ 緋袍⑬ 青袍⑬ 綠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相別	黃文綾袍②① 緋色① 綠色②	章服②③ 黃袍②①② 黃文綾袍③ 紫黃色②③④ 緋色②③④ 綠色②③④ 朱青色② 白色③	章服③④①②① 素服④④②① 紫服④④②① 紫色④④②① 朱色④④②① 白色④④②① 綠色④④②① 青色④④②① 緋色④④②①	紫袍⑥ 緋衣⑥ 綠袍⑥	章服⑤②①	無紋素羅⑦ 紫袍⑦ 青袍⑦ 白色⑦	無紋素羅⑦	白衫④ 緋袍⑬ 青袍⑬ 綠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옷깃모양別	黃文綾袍②① 緋色① 綠色②	章服②③ 黃袍②①② 黃文綾袍③ 紫黃色②③④ 緋色②③④ 綠色②③④ 朱青色② 白色③	章服③④①②① 素服④④②① 紫服④④②① 紫色④④②① 朱色④④②① 白色④④②① 綠色④④②① 青色④④②① 緋色④④②①	紫袍⑥ 緋衣⑥ 綠袍⑥	章服⑤②①	無紋素羅⑦ 紫袍⑦ 青袍⑦ 白色⑦	無紋素羅⑦	白衫④ 緋袍⑬ 青袍⑬ 綠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무늬장식別	黃文綾袍②① 緋色① 綠色②	章服②③ 黃袍②①② 黃文綾袍③ 紫黃色②③④ 緋色②③④ 綠色②③④ 朱青色② 白色③	章服③④①②① 素服④④②① 紫服④④②① 紫色④④②① 朱色④④②① 白色④④②① 綠色④④②① 青色④④②① 緋色④④②①	紫袍⑥ 緋衣⑥ 綠袍⑥	章服⑤②①	無紋素羅⑦ 紫袍⑦ 青袍⑦ 白色⑦	無紋素羅⑦	白衫④ 緋袍⑬ 青袍⑬ 綠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袖幅 및 衣裾 모음別	黃文綾袍②① 緋色① 綠色②	章服②③ 黃袍②①② 黃文綾袍③ 紫黃色②③④ 緋色②③④ 綠色②③④ 朱青色② 白色③	章服③④①②① 素服④④②① 紫服④④②① 紫色④④②① 朱色④④②① 白色④④②① 綠色④④②① 青色④④②① 緋色④④②①	紫袍⑥ 緋衣⑥ 綠袍⑥	章服⑤②①	無紋素羅⑦ 紫袍⑦ 青袍⑦ 白色⑦	無紋素羅⑦	白衫④ 緋袍⑬ 青袍⑬ 綠袍⑬	① 隋書, 卷12, 志第7, 禮儀 7. ② 舊唐書, 卷45, 志第 25, ③ 新唐書, 卷24, 志第14, ④ 新唐書, 卷34, 志第24, ⑤ 宋史, 卷151·152·153, 志第 104, 105, 106. ⑥ 漢書, 卷56, 志第 25, ⑦ 儀衛志, 卷 2, ⑧ 金史, 卷 43, 志第 24, ⑨ 元史, 卷 78, 志第 28, ⑩ 輿服 1. ⑪ 明史, 卷 66·67, 志第 42·43, 輿服 2·3. ⑫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30, ⑬ 釋名, 卷 5, 臺北. ⑭ 古今事物考, 卷6, 臺北. ⑮ 古今事物紀原, 卷3, 臺北. ⑯ 朝鮮王朝實錄, 仁祖五年七月. ⑰ 高宗純宗實錄 中, 高宗 25年. ⑱ 唐會要, 卷31, 臺北. ⑲ 冊府元龜, 卷61·62, 臺北. ⑳ 中華古今注, 卷上·中, 臺北. ㉑ 朱子語類, 卷第 91, 禮 8, 雜類說, 卷 19. ㉒ 芝峯燕語, 卷之六.

되는 袍衫名稱에 關한 資料調査』를 參照 바람).

記錄된 名稱中 章服, 素服, 異文袍, 紫衫은 그 名稱과는 다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對한 推論過程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章服은 옷의 色을 意味하는 것이요³⁾ 唐·宋에 이르러서는 百官이 魚袋와 함께 緋·紫服을 賞 받을 경우 章服이라 하였으며⁴⁾, 宋代의 章服은 公服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紫袍·金魚袋와 緋袍·銀魚袋를 賜與 받는 것이 最高의 영광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章服은 團領이 되 色으로 品階가 區別되는 옷을 意味하는 것이다.

둘째, 素服은 中國에서의 개념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무늬가 없고 흉배를 제거한 검은 團領을 意味하며⁵⁾ 최초의 記錄은 唐代 玄宗이 5陵에 배알할 때 着用하였다⁶⁾.

셋째, 異文袍는 繡袍와 綾袍가 포함되는 것으로 唐代의 繡袍는 특수한 무늬를 갖고 있다. 즉 측천무후(在位 AD. 648~704)가 山型의 裾에 回文을 繡 놓아 새로 부임하는 都督刺史에게 사여하였고 延載元年(AD. 694)에는 忠貞正直崇慶樂職 등의 8字訓誡를 回文으로 새겨 文官三品 以上에게 사여했었다⁷⁾. 따라서 異文袍는 글자를 △型으로 繡 놓거나 織組한 것이며 回文과 함께 盤龍, 鳳, 雁, 麟, 虎 등의 무늬도 새겼으니 이들은 後日 補胸背의 무늬로 연결되는 것 같다⁸⁾.

넷째, 紫衫은 特別히 작은 衫이다⁹⁾. 즉 緊身窄袖形인 것이다. 이것은 唐代 武官의 옷이었는데¹⁰⁾ 以後 宋에서 軍校服으로 使用하였으며 南宋에 이르러서는 戎事에 便하기 爲해 士大夫도 着用한 적이 있고 옛날의 戎服이 발전된 것이라 하였다¹¹⁾. 한편 胡服 또한 窄袖

며 緊身의 形態를 지니는데 唐代 以後 團領으로 推定되는 「胡服」의 記錄은 없다. 따라서 唐初期까지의 胡服形態가 唐 中期에서 窄袖와 闊袖의 形態로 나누어지면서 窄袖衣가 紫衫으로 發展되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紫衫을 비롯하여 窄紫, 紫羅窄袖衫, 窄袖紫衫등으로 記錄되었는 것 같다.

Ⅲ. 問題點 提示 및 分析

Ⅲ-1. 團領의 流入時期

宋代의 儒學者인 朱子和 司馬溫公이 말하는 바 上領衫은 團領이다¹²⁾. 그런데 上領은 晉·五胡以來로 中國衣冠이 혼란해지면서 침투되어온 元魏의 服制로 周, 隋, 唐으로 因習되어온 胡服이라 하였다¹³⁾. 여기에서 元魏라 함은 辭海에 北魏를 意味한다¹⁴⁾고 하였는데 北魏의 前身은 「代」(A.D. 315~376)이다. 「代」는 晉의 愍帝(在位: A.D. 313~316)가 建興 3年(A.D. 315)에 拓跋猗盧를 王으로 책봉하므로서 建國된 나라로 五胡에 들지는 않으나 이들의 풍습 역시 胸奴와 비슷하여 머리를 땅았으므로 索頭部라고도 하였다. 또한 代는 地理的으로 中原명의 北東쪽에 위치하여 총 7代 62年間 存立하였는데 도중에 拓跋珪가 政權을 잡자 스스로를 道武帝(在位: 386~409)라 칭하고 그의 姓을 元으로 바꾸었으며 이것이 後日 北魏로 발전 되었다. 따라서 「代」는 北魏의 前身이 되며 엄밀하게는 「代」의 治世期間속에 「元魏」가 포함된다¹⁵⁾.

따라서 團領이 中國의 歷史上 着用되는 最古의 한계선은 「代」의 건국시기인 A.D. 315년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2. 隋 服制의 正統과 現實의 흐름

隋는 魏와 北齊에서 通服한 輿服등을 기피하다고 보

11) 宋史, 卷 153, 志第 106, 輿服 5, 3578. 「本軍校服 中興士大夫服之 以便戎事 紹興九年…二十六年 再申嚴禁 毋得以戎臨民 自是紫衫遂廢.」

12) 高宗實錄, 卷 25, 25年 戊子, 11月 「團領者上領也 司馬溫公曰 上領者本出胡服 朱子曰 上領衫 本朝因唐 因隋隋因周周因元魏 元魏者拓跋魏也.」

13) 朱子語類, 卷 91, 禮 8 「猶得今世之服 大抵皆古服如上領衫…中國衣冠之亂 自晉五胡後來 遂相承襲唐 隋隋接周周接元魏 大抵皆胡服.」

14) 辭海, 中華書局, 287(1976) 「北魏孝文帝 改拓跋爲元 故北魏又稱元魏」이라하여 孝文帝가 그의 姓을 바꾼 것으로 되어있으나 잘못될 것 같음.

15) 陳致平, 中華通史, 第 3冊,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98(1975).

3) 芝峯類說, 卷 19 「皇帝 爲文章…然則文章非衣服之類 乃服之色也.」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 Ⅲ, 敎文社, 312(1982) 轉載.

4) 新唐書, 卷 24, 志第 14, 車服, 526. 「自是百官賞緋紫 必兼魚袋 謂之章服.」

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258, (1984). 芝峯類說, 卷 19, 服用部 朝章. 「中朝國忌日 官司不廢生 但不座堂 官員着 無紋黑團領 去胸背 謂之素服」

6) 舊唐書, 卷 45, 志第 25, 輿服, 1940.

7) 唐會要, 卷 32. 「回文: 漢詩體의 한가지로 순·역·중·경 어느쪽으로 읽어도 의미가 통하는 詩.」

8) 金也之, 文光姬, 中國의 團領研究, 前掲, 16 文武官公·常服 무늬一覽 參照.

9) 合璧事類, 引身章撮要, 「紫衫非公服 特小衫也.」 周錫保, 前掲, 263轉載.

10) 新唐書, 卷 34, 志第 24, 五行 1, 「高宗營內宴 太平公主紫衫玉帶…女子 不可爲武官 何爲此裝束.」

았으므로 統一을 한후 옛날의 儀禮를 부활하고자 하였다¹⁶⁾.

581年 周를 멸망시키고 隋를 건국한 楊堅은 원래 鮮卑系의 末族으로 北周의 실력자였다. 周 멸망 후 스스로를 皇帝라 칭한 楊堅은 589年 南朝의 陳을 멸망시킨 후 명실공히 약 300年間 中原의 분열상태를 끝맺고 多民族的의 中央集權制 國家로 統一하였으니 以後 그는 漢族으로서 군림하였고 漢文化를 계승하였으며 漢·晉의 法度を 좇아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때 衣冠의 漢化에 對하여 강력히 奏請한 者가 있었으니 太子庶子이면서 太常少卿을 겸했던 婁正이었다. 즉 隋書 禮儀志에 그의 奏請文이 있는바 “魏以來로 制度가 모두 없어졌읍니다. 天興(魏 道武帝, A.D. 386) 때 처음으로 다듬어 만든 車服제도가 胡制를 많이 참작하였는데 위수(魏 收)가 옛날의 제도에 위배된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周氏가 그것을 이어 받아서 故事(典故)가 되었으며 大象年間(A.D. 599~580)에 계속 이어 받아 선택하여 使用했는데 수레와 衣冠이 심히 괴이합니다. 오늘날 隋가 혁명을 일으켜 前代를 본받았읍니다. 魏와 周의 輦輅가 제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有司에 칙을 내려 모두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衣冠과 禮器 또한 위의 칙명에 맞도록 해야하며 반드시 그 잘못을 개혁하십시오. 이제 청컨대 冠과 冕의 색은 玄色을 並用하도록 하고, 幘을 써야 하는 者는 漢·晉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므로서 分부에 可하다고 한 귀절이 있다¹⁷⁾. 여기서 보면 胡制란 團領을 中心으로 한 服制 즉 北朝의 樣式이며, 옛날의 제도에 위배된다 함은 漢의 制度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隋가 혁명을 일으켜 前代를 본받았다함은 魏와 周를 거쳐서 내려오던 胡制를 억제하고 漢·晉의 制度를 이어 받는다는 것인데 衣冠뿐만 아니라 禮器 또한 漢·晉의 法度を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이라 한 것이 胡俗使用인 것이다. 따라서 冠, 冕, 幘을 쓰는 者란 官服을 갖추는 者를 通稱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漢·晉의 法度を 따르게 되었으니 以後 隋代의 服制 記錄이 漢의 法度を 重視하고 胡制를 輕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文書化시킨 것은 대부분이 漢의 服制이다.

그러나 生活의 習俗이란 法制에 의하여 쉬이 變化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南北朝 當時 漢과 胡의 文化가 혼화된 상태에서 團領이 이미 體系化되어 있었고 生活속에서 一般化되어 있었다¹⁸⁾는 點을 감안해 볼 때 비록 隋가 漢民族으로서 자처하였다 하더라도 尙舊하여 非生活服인 漢의 深衣制보다는 簡박하고 편리한 胡制의 단령을 쉽게 버릴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隋 文帝 때의 法制와 當時의 着用 現實은 다소 差異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2代 煬帝 때의 衣服令을 보면 初期 開皇制 때와는 달리 服制가 形式보다는 實用的인 面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¹⁹⁾ 이것은 오히려 當時의 生活形態를 비교적 성실하게 반영하는 衣服令으로 생각된다. 한편 漢·晉의 法度を 의식적으로 고수하려고 했던 강한 의지의 文帝와는 달리 煬帝는 國家의 財力이나 文化등을 주위 蕃屬國의 使人이나 商人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기이한 藝術人들을 불러 놀기 좋아했으며 運河를 만들어 江과 山에서 野遊하기를 매우 좋아했다²⁰⁾. 이 때마다 그는 百官으로 하여금 從駕하도록 했는데 從駕百官들에게 戎服을 입혔다. 그런데 宋朝의 公服은 모두 옛날의 戎服이라 했고²¹⁾ 唐 天子의 常服인 赤黃袍衫 또한 周에서 戎事에 편하도록 使用한 옷이라 하니²²⁾ 隋代의 戎服은 團領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戎服은 袴褶과는 다르며 紫, 緋, 綠, 靑, 黃(阜, 白) 2가지가 더 있으나 色에서 제외시킨 듯 함) 5色을 사용하여 等差를 두었다고 하므로²³⁾ 煬帝는 文武百官에게 戎服을 거의 常服化하여 着用시켰음을 알 수 있다.

18) 舊唐書, 前揭, 1951. 「讌服…介亦謂之常服 江南則則以巾褐裙襦 北朝則雜以戎夷之制 爰至北齊 有長帽短靴合袴襪子 朱紫玄黃 各任所好…高氏諸帝 常服緋袍 隋代帝王貴臣 多服黃文綾袍.」 여기서 江南은 南朝이며 高氏는 北齊이다.

19)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文化出版局, 101-107, (1984)의 분류법에 따름. 「隋, 文帝의 開皇制에서는 群臣의 服에 發服이 14, 朝服이 3종임. 隋煬帝의 大業制에서는 群臣의 服에 發服 5, 朝服 5, 公服 1, 常服 1종으로 發服을 크게 줄이는 한편 公常服을 만들어 生活에 편케 하였음.」

20)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153(1981)

21) 朱子語類, 前揭, 3694, 3698. 「今之公服 皆古之戎服 隋煬帝南游 命群臣以戎服從 大臣紫 中緋小綠.」 「問今公服 起於何時 曰 隋煬帝游幸 令群臣皆以戎服從.」

22) 舊唐書, 前揭, 1938. 「其常服赤黃袍衫…皆起自魏周便於戎事.」

23) 隋書, 前揭, 279.

16) 舊唐書, 前揭. 「後魏北齊 與服奇詭 至隋氏一統始復舊儀」

17) 隋書, 卷 12, 志第 7, 禮儀 7. 「後魏以來 制度咸闕 天興之歲 草創繕修 所造車服 多參胡制 故魏收論之稱遠古 是也. 周氏因襲 將爲故事 大象承統 咸取用之 輦輅衣冠 甚多迂怪 今皇隋革命 憲章前代 其魏周輦輅不合制者 已勅有司盡令除廢 然衣冠禮器 尙且兼行…須革其謬 今請冠及冕 色並用玄 唯應著幘者 任依漢晉 制日可」

따라서 隋의 初期皇帝인 文帝 때의 團領着用을 逆으로 推定해 보면 北朝에서 이미 體系的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團領이 文帝의 漢·晉 부활책으로 完全히 空白期가 되고 2代 煬帝때 다시 戎服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着用될 수는 없었다고 본다. 비록 文帝가 漢·晉의 法度を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589年 統一後가 되며 統一以前の 8年間 治世期間과 自身이 北周의 후예라는 點을 감안한다면 이 期間에는 北周의 服 즉 團領服도 많이 着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隋皇帝의 精黃袍衫 着用이 바로 北齊에서 着用한 단령의 연속임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隋가 統一을 한 後라 할지라도 漢·晉의 衣服인 장황한 直領의 深衣制를 生活속에서 일상복으로 갖출 수는 없었을 것이며 동시에 검박하고 편리한 團領을 漢·晉의 衣冠을 尙상한다 하여 쉽게 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開皇帝에서의 記錄과 實際의 狀況에는 多少의 差異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團領은 文帝때도 계속해서 着用되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III-3. 唐 胡服의 3가지 意味

胡服이란 漢民族 以外の 服制를 말하는데 後漢 中期以前에는 北族의 옷을 指稱하였으며 그 以後에는 西域의 옷의 指稱하는 것이다²⁴⁾. 또한 中原에서 治世하였다 하더라도 지배계층이 漢民族이 아닌 경우, 胡國이 되며 따라서 그들의 固有服飾 一切는 胡服이 된다.

唐은 文化的인 面에서 前後諸國에 比較하여 팔목할 만한 發展과 豊유를 누렸으며 명실공히 世界帝國으로서 그 지배영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니 中央아시아와 西域一帶의 出土品이 唐代인 A.D. 7~9C의 것으로 집중 出土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²⁵⁾. 따라서 唐 文化의 包容성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唐은 漢民族이므로 그들 服制의 主流는 深衣制이다. 그러나 先住民이 이미 胡俗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놓았고 當時 주변국의 服制등으로 因하여 胡服 또한 여러 형태로 着用되고 있었던 것이니 唐代에서의 胡服着用에 對한 文獻은 비교적 많다. 그것을 大別해 보면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 바 하나는 趙 武靈王 19年 (B.C. 208)에 北族人으로부터 流入된 袴褶의 着用이요, 들은 唐初期의 胡服-이것이 通稱하는바 團領이 하나이며, 셋은 唐 中期에 즐겨 着用한 胡服이다. 즉

唐 初期의 胡服은 古今事物考에서 말하는 北齊以來全部가 使用한 옷이며 窄袖에 緋綠色이며 武德(A.D. 618~626) 貞觀(A.D. 627~649)년에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²⁶⁾ 이것은 朱子語類에서도 언급되고 있다.²⁷⁾

그러나 唐 中期 즉 開元(A.D. 713~741), 天寶(A.D. 742~755) 年間に 또한번 胡服이 즐겨 着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때는 貴族과 士民은 물론 婦人, 士女들까지도 胡服, 胡食을 즐겨하였다 한다^{28), 29)} 여기서의 胡服은 그 發祥과 관계되는 北朝의 胡服이 아니다. 700年代를 前後한 唐의 주변국의 옷인 것이다. 즉 唐 中期以後 長安에는 많은 他國의 사람들이 살았으니 唐에 來往한 國家의 數는 70餘國에서 300餘國이 될 때도 있었으며 주로 위구르족, 티어키족, 南詔人, 日本人, 新羅人, 페르시아인, 아랍인 등이었고 월남, 인도 및 동로마 등에서도 항상 사람들을 장안에 왕복시켰는데 이에 대해 唐은 그들의 文化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豊부하고 화려한 文化를 이루었다고 하였다³⁰⁾. 또한 大曆 14年(A.D. 779)에는 京師에 위구르족이 千名이나 되어 漢服을 입고 妻妾을 취하기도 하여 詔를 내려 漢服의 着用을 禁止한 적도 있었다³¹⁾. 따라서 이때의 胡服은 위구르, 티어키를 中心한 當時 주변국의 胡族服이니 주로 둥근 깃을 접은形, 앞 中心이 트인形, 襖에 각종의 紋樣을 두른形, 그리고 蹀躞七事라 하여 수건, 주산, 숫돌, 칼 등 7가지의 물건을 허리에 차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이 胡服에 比하여 唐 前期의 胡服은 開元 天寶間이 되면 一部는 소매폭이 넓어져서^{32), 33)} 宋의 公服으로 發展되고 一部는 窄袖 그대로의 形態를 유지하며 紫衫, 窄衣 등의 名稱으로 發展되었으니 胡服이 아닌 또하나의 中國服으로 인식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宋代의 學者들이 團領의 根原을 研究하는 過程에서 그 發祥에 근거하여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따라서 唐 中期의 胡服은 外國의 流行옷을 좇는 사

26) 古今事物考, 卷 6, 119. 「自北齊以來 全用胡服 窄細緋綠 唐武德 貞觀猶爾」

27) 朱子語類, 前揭, 3696. 「唐初年 服袖甚窄 全是胡服 中年漸寬 末年又寬」

28) 新唐書, 卷 24, 志第 14, 車服, 879. 「天寶初 貴族及士民好爲胡服胡帽 婦人則…袴褶窄小」

29) 舊唐書, 前揭, 1958. 「開元來…貴人御僕 盡供胡食 士女皆竟衣胡服 故有范陽羯胡之亂 兆於好尙遠矣」

30) 周汎, 高春明, 中國服飾五千年, 中國服裝史研究組, 76, (1984).

31) 司馬光, 資治通鑑, 卷四, 景文社, 526, (1977).

32) 古今事物考, 前揭, 119.

33) 朱子語類, 前揭, 3689.

24) 王國觀, 維堂集林, 河洛圖書出版社606(1975).

25) 杉本正年, 東洋服飾史, カラースライド, 衣生活研究會, 33(1984).

이러한 社會相의 一面을 나타내는 것으로 後에 范陽羯 飢의 亂이 일어나는 등기가 되었다³⁹.

III-4. 옷깃 表現語와 曲領

원래 團領이란 옷의 깃모습을 보고 붙인 袍名으로 木耑례선에서 파임의 깊고 낮음에 따라 形態가 多少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時代에 따른 變遷일 뿐 그 稱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다.

古文獻上 깃 表現語로는 曲領, 上領, 團領, 上襟, 盤領, 團領으로 表記되어 있다. 단 上襟은 背子の 모습으로 團領服은 아니다. 이들중 曲領과 團領을 除外하고는 A.D. 12C를 前後하여 나타나므로 함께 分析해 보고자 한다. 上領은 朱子語類에서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朱子語類는 南宋(A.D. 1127~1279)때의 大儒學者인 朱熹(A.D. 1130~1200)의 글을 모은 것이니 上領에 對한 인식은 南宋以後이다. 團領은 南宋때 士大夫가 입은 襖衫의 形態이며³⁴ 盤領은 南宋때 陸游(A.D. 1125~1210)가 쓴 老學庵筆記에 背子の 모습으로 記敍되고 있으며³⁵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葉夢得(A.D. 1077~1148)이 石林燕語에서 上襟背子를 云云하고 있다³⁶. 여기에 對하여 厓鉞保는 宋代의 背子は 半臂形式을 이어 받은 것과 中單形式을 이어 받은 것이 있는데 半臂形式은 直領이고 中單形式은 盤領인 것과 斜領인 것 2가지가 있다고 하며 宋代에서 公服안에 입는 背子は 盤領背子라고 하였고 老學庵筆記에서의 盤領背子와 石林燕語에서의 上襟背子は 同一樣式이라고 하였다³⁷. 따라서 上襟은 盤領이란 名稱이 생기기 直前에 使用된 등근깃의 表現語로 보아야 한다. 즉 老學庵筆記와 거의 同時期인 金(A.D. 1125~1233)인의 常服에도 盤領이라는 構體的 記敍³⁸이 있는 것으로 보아 以後 上領, 上襟은 使用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時期的으로 上襟·上領이 먼저 使用되었고 後에 團領·盤領이 使用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1200年을 前後하여 使用된 옷깃의 表現語들이다.

다만 團領은 明 洪武 3年(A.D. 1370)에 처음 記敍되고 있어서^{39,40} 他 表現語보다 훨씬 뒤에 命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깃의 파임, 소매폭, 옷길, 무늬에 大小의 差異가 있을 뿐 옷깃양식은 同一하다. 問題는 曲領이다. 曲領은 既存研究에서도 論難의 對象이 될 만큼 直領, 團領으로 混用되고 있는 實情이다⁴¹. 古文獻上 曲領에 對한 記敍는 釋名⁴², 急就編⁴³, 後漢書⁴⁴, 三國志⁴⁵, 事物紀原⁴⁶, 隋書⁴⁷, 宋史⁴⁸, 그리고 三才圖會⁴⁹에 있다(原文 및 해석은 「團領으로 推定되는 名稱에 關한 資料調査」參照).

먼저 宋史에 記敍되어 있는 曲領은 團領이다. 이것은 宋代 公服의 형태를 선명한 것인데 그당시의 주변 諸國의 公服형태와 마찬가지로 紫·朱·綠·靑 4色으로서 官位에 等差를 두고 있으며 단령 재도의 기본인 幘頭, 帶, 鞵, 笏을 갖추고 있으며, 宋代에 와서는 公服이 이미 完全히 團領化된 點등으로 미루어 宋代에서의 曲領은 團領의 깃 모습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며 三才圖會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을 除外한 他文獻에서의 曲領은 그 해석상 團領으로 보기 어렵다. 깃이 둥글다는 點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으나 옷의 基本樣式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釋名⁴², 急就編⁴³, 事物紀原⁴⁶의 記敍를 종합해 보면 中衣의 깃 위에 있으며 목은 가로로 막는 것이되 그 모양이 넓고 커서 曲領이라고 하였으며 그中 釋名에서 가장 먼저 形態를 記敍하고 있는데 釋名은 後漢의 劉熙가 지은 冊이니 曲領은 漢代에 이미 存在했다. 그러나 團領은 五胡를 前後하여 들어온 樣式으로 後漢보다 약 200년 뒤다. 또한 隋代에 와서는 7品以上 內單이 있는 者가 着瓦하며 從省服과 8

41) 團領의 種類: 金東旭, 고구려 복식구조, 韓國의 服飾, 한국문화재보호협회, 58(1982). 金東旭, 團領의 發生, 服飾 第10號, 한국복식학회, 91(1986). 劉頌玉, 古代東西洋上衣比較研究, 服飾 第3號, 45-46(1980). 高福南,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227(1986). 金美子, 中國의 團領에 대한 研究, 服飾 第3號, 56(1980). 曹五順, 團領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5(1986).

直領의 種類: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102-103(1978).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87(1985).

42) 釋名, 卷第5, 釋衣服 第16, 81(1966) 「曲領在內以禁中領上 橫壅頸 禁中依畢校 其狀曲也」.

43) 急就篇, 卷 2, 143(1965) 「著曲領者 所以禁中衣之領 恐其上攙頸也 其狀闊大而曲 因以名云…」

44) 後漢書, 卷 85, 東夷列傳 第75 濊貊, 2818(1977)

45) 三國志, 卷30, 魏書, 志第 30, 東夷滅條.

46) 高承, 事物紀原, 商務印書館, 102(1965). 「隋禮儀志云 曲領 按釋名在單衣內 襟領上 橫以壅頸 檢自歷代衣服之制 其物無文…」

34) 宋史, 前揭, 3579.

35) 老學庵筆記, 卷 2, 臺北商務印書館, 17(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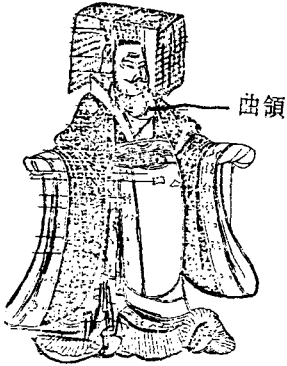
36) 石林燕語, 卷之 10, 臺北商務印書館, 95(1966).

37) 中國古代服飾史, 前揭, 309-322, (1984).

38) 金史, 卷 43, 志第 24, 輿服下.

39) 明史, 卷 66, 志第 42, 輿服 2.

40) 明會典, 卷之 60, 61.



〈圖 5〉(中國古代服飾史, p. 84)



〈圖 7〉(東洋服裝史論攻, p. 115)



〈圖 6〉(中國古代服飾研究, p. 149)

品以下에는 모두 없었다고 하니⁴⁷⁾ 比較的 上層의 官吏 내지는 禮가 重한 경우에 着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冕·朝服 등에 있는 것이다. 한편 曲領에 對해 周錫保는 冕服圖의 中單것에 덧붙인 듯한 것을 曲領이라 하였고⁵⁰⁾ 〈圖 5〉 臺北版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는 中單의 것이 되 앞이 벌어진 交領의 모습을 提示하고 있다⁵¹⁾ 〈圖 6〉. 또한 張末元은 曲領은 中衣의 곁에 두르는

일종의 領巾인데 領巾이란 특별히 만든 일종의 옷 것으로 中衣 곁에 專用되며 禮服에 使用하고 方領, 方心曲領들도 모두 領巾에 속한다고 하였다⁵²⁾. 成者姬는 曲領을 方心曲領과 同一하게 說明하고 있으며⁵³⁾ 杉本正年 또한 曲領은 바로 方心曲領인데 後代에 나타난 方心曲領은 『女季經圖(五代 혹은 宋의 作品으로 추정함)』에 처음 나타날 뿐 以前의 모습은 달랐으며 『凌烟閣功臣』(圖 7)의 모습에서 속의 것 모습이 曲領이라고 하였다⁵⁴⁾. 한편 杉本正年의 方心曲領 訛傳說에 對해서는 前述한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 宋代에서 사람들이 曲領을 관련없는 사실과 합쳐서 方心曲領의 모양을 凸型으로 만들어 목에 두르되 앞 아래에 자물쇠같은 것을 늘어지게 만들어 옷 밖에 달았는데 이것은 聶崇義의 『三禮圖』중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이며 元의 『事林廣記』, 明의 『三才圖會』가 그대로 이어받아 그리므로서 訛傳에 妄傳을 계속하여 後日 本來의 모습을 얻을 수가 없었다⁵⁵⁾.

以上的 모든 觀點에서 曲領은 宋代에서는 圓領을 意味하고 있으나 그 本來의 形態는 冕·朝服에서 中衣의 곁위에 입는 것으로 긴 사자의 띠를 둘러 頸(뒤통)을 가로로 막아 앞에서 늘어지게 한 것이며 여밈의 종류에 따라 交領의 形態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⁵⁶⁾.

52) 張末元, 韓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民族文化社, 36, 40, 1984.

53) 成者姬, 中國歷代君王服飾研究, 열화당, 14-15, (1984).

54) 東洋服裝史論攻, 前掲, 中世篇, 115, 130.

55) 中國古代服飾研究, 前掲, 167.

56) 金也之, 文光姬, 中國의 圓領研究, 前掲, 5, 曲領에 대한 說明 參照.

47) 隋書, 前掲, 275.

48) 宋史, 前掲, 3561.

49) 王圻, 三才圖會, 臺北, 成文出版社, 1970.

50) 中國古化服飾史, 前掲, 34.

51) 中國古代服飾研究, 前掲, 149.

Ⅳ. 結 論

古文獻에서 團領으로 推定되는 名稱을 발췌하며 본 結果 <表 1>와 같이 整理되었으며 記錄된 袍名 中 章服, 素服, 異文袍, 紫衫은 그 名稱과는 다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研究結果 章服은 團領이 되 반드시 色相이 있는 옷이었으며, 素服은 무늬가 없고 흉배를 제거한 점은 團領이었으며, 異文袍는 옷 전체 혹은 일부에 무늬가 있거나 繡를 놓은 것이되 回文을 山모양으로 하여 글자(詩)를 繡놓은 團領이고, 紫衫은 옛날의 戎服에서 발전된 것으로 唐·宋以後 軍校服으로 使用한 特小衫의 團領이었다.

團領名稱에 關한 資料調査로부터 提示된 問題點과 그들에 對한 究明은 다음과 같다.

1. 團領의 流入時期: 朱子語類에 記錄되어있는 上領은 團領인데 上領은 元魏에서 생겼고, 元魏는 鮮卑系 拓跋族이 세운 代(A.D. 315~376)인데 도중에 拓跋珪가 그의 姓을 元으로 바꾼데서 나온 것이므로 團領의 流入時期는 文獻上 A.D. 315년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隋 服制의 정책과 現實의 흐름: 隋의 文帝는 鮮卑系의 末族이었으나 統一以後 漢文化를 계승하고자 하였으니 裴正의 奏請을 받아 漢·晉의 服制를 典故로 하여 服制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生活의 習俗은 法令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點과, 2代 煬帝때 從駕百官들에게 戎服을 입힌 點, 그리고 大業制와 開皇制 衣服領의 差異點 등으로 미루어 隋代에서는 漢化를 고수하려는 政策의인 面이 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堅執하고 頑리한 團領이 生活속에 깊이 침투되어 갔다고 보아지므로 文帝때의 衣服令은 實際와 差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3. 唐 胡服의 3가지 意味: 唐은 前後의 諸國에 比하여 그 지배영역이 매우 컸던 漢民族이라는 點에서 異民族의 服飾 즉 胡服에 대한 記錄이 비교적 많다. 그것을 大別해 보면 袴褶과, 唐 初期의 胡服과, 唐 中期의 胡服인데 初期에 使用되었던 胡服이 團領으로서 그 發祥에 입각해서 생긴 名稱이며 中期의 胡服은 A.D. 8C頃의 唐 주변국 즉 위구르, 터어키, 페르시아 등의 服飾을 意味하는 것이다.

4. 옷깃 表現語와 曲領: 古文獻에 등근 衣襟을 表現한 것으로 曲領, 上領, 圓領, 上襟, 盤領, 團領이 있으나 上襟은 背子の 衣襟이므로 團領服은 아니다. 衣襟名稱이 처음 記錄되는 것을 時代別로 分類해 보면 宋에

서 曲領, 南宋에서 上領, 圓領, 金에서 盤領, 明에서 團領이며 通稱 團領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曲領은 宋史와 三才圖會에서만 團領을 意味하며 釋名, 急就篇, 後漢書, 三國志, 事物記原, 隋書에서의 記錄은 中衣의 衣襟 위에 있으며 목을 가로르 막는 것이고 그 중 釋名에서 가장 먼저 그 形態를 記錄하고 있는데 釋名은 後漢의 劉熙가 지은 冊이니 時代의으로 보아 五胡를 前後한 團領流入時期보다 약 200년 빠르다. 따라서 이것은 團領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冕·朝服의 着用時 中衣의 衣襟에 입는 것으로 긴 사자의 衣襟을 둘러 가로로 막아 앞에서 늘어지게 한 것이다. 이것을 副證하는 資料로서는 中國古代服飾研究와 周錫保, 張末元, 杉本正年, 成者姬의 說인 方心曲領의 舊型 혹은 그와 類似型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지금 그 形態가 정확히 傳해지지 않는 것은 宋代 사람들의 附會性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後漢書, 卷 85, 志第 75, 서울, 景仁文化社, (1977).
 隋書, 卷 12, 志卷 7, 禮儀 7, 서울, 景仁文化社, (1977).
 舊唐書, 卷 45, 志第 25, 輿服 3, 서울, 景仁文化社, (1977).
 新唐書, 卷 24, 志第 14, 車服, 서울, 景仁文化社, (1977).
 新唐書, 卷 34, 志第 24, 五行 1, 서울, 景仁文化社, (1977).
 遼史, 卷 56, 志第 25, 儀衛志 2, 서울, 景仁文化社, (1977).
 宋史, 卷 151, 552, 153, 志第 104, 105, 106, 輿服 3, 4, 5, 서울, 景仁文化社, (1977).
 金史, 卷 43, 志第 24, 輿服 中·下, 서울, 景仁文化社, (1977.)
 元史, 卷 78, 志第 28, 輿服 1, 서울, 景仁文化社, (1977).
 明史, 卷 66, 67, 志第 42, 43, 輿服 2, 3, 서울, 景仁文化社, (1977).
 三國志, 卷 30, 魏書, 志第 30, 東夷讖條, (1977).
 劉熙, 釋名, 卷 5, 臺北, 商務印書館, (1966).
 史游, 急就篇, 臺北, 商務印書館, (1965).
 王聘三, 古今事物考, 臺北, 商務印書館, (1965).
 高承, 事物紀原, 臺北, 商務印書館, (1965).
 葉夢得, 石林燕語, 臺北, 商務印書館, (1966).

- 陵游, 老學庵筆記, 臺北, 商務印書館, (1966).
- 王溥, 唐會要, 臺北, 商務印書館, (1968).
- 明會典, 臺北, 商務印書館, (1968).
- 李匡義, 中華古今注, 臺北, , 商務印書館, (1966).
- 黍靖德, 朱子語類, 臺北, 正中書局, (1973).
- 司馬光, 資治通鑑, 서울, 景文社, (1977).
-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1981).
- 王國維, 觀堂集林, 河洛圖書出版社, (1975).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서울, 民族文化社, (1984.)
- 周汎, 高春明, 中國服飾五千年, 臺北, 商務印書館, (1984).
- 王圻, 三才圖會, 臺北, 成文出版社, (1970).
- 陳致平, 中華通史, 臺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75).
- 辭海, 臺北, 中華書局, (1976).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78).
-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70).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攻, 中世, 東京, 日本衣生活研究會, (1984).
- 杉本正年, カラーズライト 東洋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78).
-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 II, III, 서울, 敎文社, (1982).
- 朝鮮王朝實錄, 34, 國史編纂委員會, (1981).
- 高宗實錄, 探求堂, (1979).
- 李晬光, 芝峯類說,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5).
- 金東旭, 고구려 복식구조, 韓國의 服飾, 서울,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58, (1982).
- 金東旭, 團領의 發生, 服飾 第10號, 한국복식학회, 91 (1986).
- 劉頌王, 古代東西洋上衣比較研究, 服飾 第3號, 45-46, (1980).
- 高福南, 韓國傳統服飾研究, 一潮閣, 227, (1986).
- 成者姬, 中國歷代君王服飾研究, 열화당, 14, 15, (1984)
- 金也之, 文光姬 “佛畫를 통해 본 고려복식과 同時代 中國服飾의 比較研究” —고려 十王圖의 단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 第11輯, 1985
- 金也之, 文光姬, “中國의 團領研究” —古文獻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 第12輯, (1986).
- 金美子, 中國의 단령에 대한 研究, 服飾 第3號, 56, (1980).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87, (1985).
- 曹五順, 團領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6).